

2023년 4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4.27. 16시	연합뉴스TV 12층 대회의실	10/10	2	1	13	○		

○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손영준, 안호림, 허인순, 김희중, 서신석
강건기, 진한수, 안성희, 이상현, 이성우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 경영진 외 : 시청자센터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13	-	-	2	15	-	15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15	-	-	15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기타	<p>연합뉴스TV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상 불편함 느껴, 연합뉴스tv에서는 뉴스를 실시간으로 보지 못하거나 과거 뉴스를 검색해서 봐야 하는 시청자를 위해 앱을 통해 뉴스 서비스하고 있음. 주요 카테고리리는 '최신' 뉴스와,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등 8개 분야로 나뉘 제공하고, 분야별 뉴스는 첫 페이지에 20개의 헤드라인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더 많은 헤드라인을 보려면 '더보기' 기능을 이용해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로 이동해 뉴스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에서 뉴스를 본 후 빠져나오면 '직전 페이지'로 복귀하지 않고 무조건 첫 번째 페이지로 복귀해 다시 원래 보고 있던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로 찾아가도록 하고 있어 시청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같은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불편함을 주고 있음. 따라서 더보기 기능을 이용해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에서 헤드라인을 검색해 뉴스를 본 후 빠져나와도 '당초 보던 페이지'에 머물도록 하여 이미 앞에서 살펴본 헤드라인은 생략하고 바로 다음 뉴스를 볼 수 있도록 개선해 주면 좋겠음.(김희중 위원).(김희중위원)</p>	<p>안드로이드 App 뒤로 가기 (새 창 띄우기) 수정 이슈는 마켓 심사 사안으로 심사 결과 대기중입니다. 심사 통과되면 최종 테스트 후 운영 배포 예정입니다. [모바일 개발서버에 패치된 내용] - 메인화면 주요뉴스 더보기 버튼 기능 수정 - 정확도 순 오류 수정 - 상세검색 날짜 선택 컴포넌트 변경(년, 월,일 선택을 각각할 수있는 컴포넌트로 변경) - 검색결과 정렬 순서에 과거순 추가 - 뒤로가기 버튼 클릭 시 기사창(레이어) 닫고 이전화면으로 갈 수 있도록 app api 호출기능 추가하였습니다. <23년 4월 조치></p>	'23.3월
보도	<p>[현장의재구성] 끊이지 않는 경비원 수난...아파트 공화국의 민낯, '터질 때마다 반복됐던 사회적 공분과 정부의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바뀐 것은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①'정부의 근절 대책(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은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②근절 또는 개선되지 못하는 한계는 무엇이고, ③어떤 보완이 필요한 것인지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함께 제시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보도 방식에 따라 사회적 공분이 가해자에게 집중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으니 (해당 사안에서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파트-공동주택의 '간접고용 구조'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되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안성희 위원)</p>	<p>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처우, 초단기 계약 등 구조적인 요인에 대해 3월26일자 리포트 등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5월6일엔 경기도가 경비노동자의 초단기 계약을 해소하는 아파트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리포트도 추가 제작했습니다. <23년 3월 조치></p>	'23.3월
총 건수		2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 해당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 '23. 01. 01.~ '23. 12. 31.)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김홍태	1969.11.7	(현)법률사무소 심평변호사 (전)도로교통공단 옴부즈맨 위원	-	18.7.1.~24.6.30
임윤주	1985.08.28	(현)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위원 (전)닐슨컴퍼니코리아 사회공공팀장	-	21.11.01~23.10.31
이동준	1983.11.28	(현)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위원 (전)홍익대학교 시간강사	-	23.02.01~24.01.31
안지연	1989.06.27	(현)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총무이사 (전)한양대학교 시간강사	-	23.02.01~24.01.31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연합뉴스TV 홈페이지에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23. 1. 1. ~ '23. 12. 31.)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위원장	손영준	현)국민대학교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전)국회 언론제도 개선위원회 위원장	한국방송학회	언론 학술	
부위원장	안호림	현)인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전)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 편집위원	성정문화재단	문화	
위원	허인순	현)한국여성경제인협회 특별부회장 전)한진엔지니어링 설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	
위원	김희중	현)중소기업중앙회 편집국장 전)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	중소기업중앙회	경제	
위원	서신석	현)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사무총장 전)한국유비쿼터스협회 부회장	전국학교운영위원 연합회	학부모 단체	
위원	강건기	현)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 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과학기술 단체	
위원	진한수	현)법률사무소 익선 대표변호사 전)서초경찰서 상담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단체	
위원	안성희	현)선진노무법인 부대표 전)서울특별시 마을노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 단체	
위원	이상헌	현)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실장 전)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 팀장	대한상공회의소	경제	
위원	이성우	현)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외협력실 과장 전)한국경제협업협회 자문위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 등 소외단체	
변 동 사 항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뉴스포커스>, <뉴스초점>의 경우에 정치, 외교 등 논쟁적 주제에는 출연자가 2명이지만, 사회 문제를 다룰 때는 비정치적 영역이라고 생각해선지 출연자가 1명입니다. 출연자 섭외가 쉽지 않지만, 외부 출연자 1명은 좀 단출합니다. 사회적 이슈라 하더라도 출연자가 늘면 다채로운 입장과 정보, 생각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출연자 한사람이 오랜 시간에 걸쳐 모든 것을 설명할	말씀하신 대로 일부 대담에는 패널이 두명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혼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각이 엇갈릴 수 있는 정치, 외교 안보 이런 쪽은 반드시 두 명을 출연시킵니다. 보수, 진보 양쪽을 출연시켜서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 같은 경우도 정치적인 이슈와 연관돼 있는 경우는 두 분을 출연시킵니다. 다만 경제, 문화, 과학 이런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경우에 긴장감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쉽지 않겠지만, 고정 출연자에도 일정한 변화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다양한 사람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뉴스포커스>, <뉴스초점>의 경우에 편성 시간을 일정하게 할 수는 없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매일 매일 뉴스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편성 시간이 바뀌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손영준위원장)	분야의 대담을 진행할 때는 가급적 한 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두세분 이렇게 같이 출연하시면 다양한 시각으로 들을 수 있고 좋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로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담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가 있어요. 너무 길어질 경우에는 그 자체도 시청자가 느끼기에는 지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에 따라 패널 수를 잘 조정해보겠습니다.			
보도	'여의도풍향계' 4월17일 에서 선거구제와 선거제도의 차이점을 알려주지 못한 점입니다. 선거구제는 좁은 의미의 선거제도로 즉 투표후 각 정당이나 후보가 얻은 득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가 토론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반면 선거제도는 선거 과정 전반을 규정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공천제도와 선거운동 방식을 모두 포괄합니다. 현재 한국정치가 직면한 진영갈등, 지역갈등 해소는 선거구제만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쟁점별 토론이 되지 못한 것은 그러한 형식보다는 미리 선거구제와 관련된 쟁점을 좁혀놓고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았던 탓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전원위원회가 과거에는 어떻게 운영되었었고, 그 목적은 무엇인지도 소개해줬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호림 부위원장)	선거구제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짧은 시간 내에 알기 쉽게 풀어낸다는 게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결과적으로는 알기 쉽게 풀어낸다는 목적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량을 좀 길게 제작했더라면 조금 보완은 됐을 텐데 짧은 분량 내에 담다 보니 제약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구제하고 선거제도를 구별하지 않고 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 *시청자 불만활용	자막관련, 뉴스를 보다보니 몇 가지 실수들이 눈에 띄어 말씀드립니다. 먼저, 4월 6일 뉴스센터 13에서는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의 기소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기사 중간쯤(1분 7초	자막 실수 그 부분들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방송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는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더라도 시청자는 실수를 이해해 주지는 않아요. 방송국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경) "'혼외자設'제기 뉴욕트럼프타워 도어맨도 돈 받아"라는 자막이 나갔 습니다. 設(베풀 설)이 아니라 說(말 씬 설)이 맞습니다. 두 번째, 4월 8일 뉴스 17의 날씨 뉴스에서는 아래 스 크롤로 지나가는 자막에 오류가 있었 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찬바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4월 9일 뉴스22의 날 씨코너에서는 "큰 일교차 주의"라는 제목의 그래프에서는 "내일 낮"과 "내일 아침"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사소한 실수도 너그럽게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보다 시청자들 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철저한 사전점검 부탁드립니다.(안호림 부위원장)	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올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실수 하나가 방송국 전체 이미지를 흐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구요. 좀 더 저희가 주의하겠 습니다. 그리고 날씨 그래픽에서 시 제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 었습니다. 주말 이른 아침에 나가는 경우, 그 전날 야근자가 제대로 시제 를 수정해줬어야 하는데 거기에 실수 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내일 모레 이렇게 상대적인 시제를 안 쓸 생각 입니다. 날짜로 쓰면 절대적인 시제 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할 가능성 은 없어지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보도	[단독] 2023년 4월 17일 방송, 인천 서 전세사기 피해자 또 극단선택 "별 써 3번째", 건축왕 2,700여채 소유 조직적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 연대 관련 소식으로 20-30대 전세사기 피 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3명으로 확 대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한 단독 기 사로 피해자 연대측의 전면적인 피해 조사 촉구, 추가적인 정부 대책이 나 올 때까지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일 시 중지 요구, 전국서 모인 전세사기 피해자들 "제도 허점 이용한 사회 재 난". 2023년 4월 19일 방송, 동탄서 도 전세 사기 신고 "오피스텔 250채 소유 부부 파산" 2023년 4월 19일 방송, 피해 상황에 대한 보도 내용과 함께 제도적인 부동산 거래의 허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라도 언급이 되어 준다면 시청자의 이해가 빠르고 대책 안 마련에 대한 의견들도 좀 더 현실 적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 다. (허인순 위원)	시간적인 제약,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리포트 2분짜리 하면서 사실 팩트와 해설을 다 전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잘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내용을 어떻게 핵심적으로 축약 해 내느냐가 사실 기자들의 실력입니 다. 길게 쓰는 것보다 짧게 쓰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기자 들이 시간의 제약만 탓할 순 없는 것 이고, 어떻게 하면은 한두 줄이라도 해설을 붙여서 시청자가 쉽게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고민을 해 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고민해 야 하는 숙제입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p>타 언론사보다 느린 포털(네이버 뉴스판) 속보 체계 아쉬워, 4.10일 오후 3.32분경 광고 나가고 있음에도 미국의 국내 도감청 논란 관련 야당의 비난에 대해 '한미동맹 흔들림없어, 용산이 청와대보다 안전'하다는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속보(자막)로 내보냄. 그러나 같은 시간대 네이버 뉴스판에서는 연합뉴스TV의 관련 속보는 찾아볼 수 없었던 반면, 경쟁사인 YTN은 같은 내용을 속보로 내보냄. 이 밖에도 속보가 송출된 몇몇 뉴스를 모니터링해 본 결과 연합뉴스TV는 포털 상 속보가 나오지 않거나 나와도 타 언론사에 비해 상위 5번째 이내에 드는 경우를 찾기가 매우 드문 것으로 파악됨. 연합뉴스TV는 뉴스가 매 시간 라이브로 송출되고 광고 중에도 속보를 신속하게 자막으로 내보내는 등 다양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청자가 아닌 포털 등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독자에게 속보를 전달하는 데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음. 앞으로 실시간 방송과 포털 상의 속보 송고도 동시에 내보내 속보의 가치를 살려 나가길 바람.(김희중 위원)</p>	<p>저희가 인력이나 체제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그동안 텍스트 기사를 포털에 빠르게 송고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중반 정도로 기억되는데 영상이 붙기 전에 데스크의 승인을 받은 단신 및 리포트 원고는 선별해서 텍스트 기사로 포털에 우선 송고하고 있습니다. 긴급 또는 주요 뉴스 속보에 대해서도 텍스트 우선 송고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보겠습니다.</p>	○		
보도	<p>사건·사고관련 자막 및 현장음 송출 시 데스크 좀 더 신경 써야, 지난 4.17일 뉴스투나잇에서는 전날(16일) 강남빌딩에서 10대 학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켜 채 투신한 뉴스가 리포트됨. 당일 자막은 '강남빌딩서 10대 여학생 극단 선택...SNS 생중계'로 나감. 이와 관련해서 우선 '여교수' '여가수', '여경'처럼 성 차별적 언어인 '여학생'이 사용되었고, '극단 선택', '생중계' 같은 단어가 자막을 구성하고 있어 다소 자극적으로</p>	<p>10대 학생 자살 생중계 이 문제는 말씀 주신 대로 데스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굳이 여학생이라는 '여'자가 붙을 이유도 없구요. 성감수성이 떨어지는 기사 처리입니다. 그러나 아주 이례적으로 자살을 SNS로 생방송했기 때문에 생방송이란 애기는 팩트상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극단 선택'이라는 용어도 엄밀히 얘기하면 '자살 보도 준칙'에 어긋나는 내용이에요. 언론이 요즘 '자살' 대신 '극단 선택'이라는</p>	○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p>느껴졌음. 따라서 '강남빌딩서 10대 학생...SNS 컨 채 투신' 정도의 자막이 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음. 또한 이날 리포트에는 '현장음'을 연결했는데 내용 중에 "자살 명소로 소문날 것 같아"라는 내용이 방송을 탐. 사실 이날 리포트에서 중요한 내용은 '투신 장소보다 거둬할 수록 우리 위원님들 아주 세밀한 정치 않게 잘 해주실 것이 힘으로 오늘 또 지난번 좋은 분들을 중요하게 식을 주셨고 또 한편으로도 반가운 우리 회사 측에서 즉각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시기 때문에를 컨 채 투신한 사실'인 만큼 해당 빌딩에서 또 다른 투신 소동이 있었다는 리포트는 웬지 사족 같은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현장음 말미에 나오는 '자살 명소'라는 부적절한 표현이 그대로 방송되는 것이 맞는지도 의구심이 들었음.(김희중 위원)</p>	<p>용어로 많이 대체해 쓰고 있지만 이 건 자살이 '하나의 선택지'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냥, 사망, 숨져 이 정도로 처리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살 명소로 소문날 것 같다는 그런 현장을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죠.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도 아니구요. 비극적인 사건의 현장음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p>			
<p>보도</p>	<p><2023.04.06. 연합뉴스TV의 [배달잇슈] "대치동 학생들은 왜 선뜻 음료수를 마셨나",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 마시게 한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마약을 빌미로 학부모들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이슈인데, 일부 수험생에게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의 각성 성분의 음료수를 홍보하는 내용으로 인식되는 보도, 기자의 보도 멘트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주의력 집중시키고 공부 잘 할 수 있는 음료로 학생들과 수험생들이 많이 먹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한번 구매하여 복용해 볼까하는 심리적인 행동유발을 일으키는 보도라고 생각한다.(서신석 위원)</p>	<p>'배달 잇슈' 문제는 결과적으로 보면 특정 회사의 약이라든가 성분에 대한 호기심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마약음료를 길 거리에서 이렇게 쉽게 받아 마신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 남용하면 안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인 만큼, 결론만 받아들이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아 이템 자체가 적절하게 소화하기 어려운 것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p>	○		
<p>기타</p>	<p><연합뉴스TV 홈페이지 관련, 뉴스</p>	<p>뉴스의 하위메뉴로 상세한 구분이 됐</p>	○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p>의 하위 메뉴로 "과학/ICT"등 필요>, 연합뉴스TV 홈페이지의 뉴스 란에 하위 메뉴로 "과학/ICT""의료/복지""산업"등 좀 더 세분화한 분야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뉴스 란의 경제나 사회 분야의 서브 메뉴로 위 세 부분야들을 두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전문 분야나 특정한 분야는 세부적으로 분류, 모아서 관련 기사들을 쉽게 검색하고 국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강건기 위원)</p>	<p>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가 그렇게 상세하게 구분을 해놓을 만큼 기사 수가 충분치 못하다는 겁니다. 방송사가 제공하는 기사라면 영상이 붙어 있어야 하는데 영상 취재가 수반되지 못하기 때문에 제공하는 기사 수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기사 수를 확충하는 대로 점차 세부 항목을 늘려가겠습니다.</p>			
기타	<p>연합뉴스TV 홈페이지 관련, 월드줌에 France24 채널이 단독 서브 메뉴로 있고, 클릭해서 들어가면 Live뉴스가 아닌 2~10분 분량의 짧은 뉴스들이 매일 업데이트 되는 거 같습니다. 문제는 생방송 뉴스를 짧게 편집하여 업로드한 것으로 프랑스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뉴스를 시청할 수가 없습니다. 개선으로 짧은 뉴스를 매일 업데이트 하려면 시청자들이 볼 수 있도록 영어 자막을 달거나 또는 한국어로 더빙을 해서 올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매 뉴스마다 시작 전에 10초 광고(1-2번 반복됨)를 의무적으로 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찾는 시청자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시작 전에 봐야 하는 광고를 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사항으로 월드줌은 대륙별 대표적인 Live뉴스채널을 배치하고, 짧은 편집 뉴스들은 세계 권역별/이슈별로 뉴스를 분류하여 한국어로 더빙하여 올리면 더 좋겠습니다.(강건기 위원)</p>	<p>홈페이지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서 초창기에는 4개 외신사 France 24, The Guardian, Newsweek, South China Mornig post의 콘텐츠를 같이 넣고 있었습니다. 번역이 안 돼 있어도 4가지 콘텐츠가 모여 있으니 구색은 갖춰져 있었는데,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3개의 콘텐츠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France 24 하나 남게 된 것입니다. 실효성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판단해 오늘부로 홈페이지에서 숨김 처리했습니다.</p>	○		
보도	<p>[현장의재구성] '마약음료'가 보이시</p>	<p>대통령이 마약 음료에 대해서 엄단을</p>	○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p>피싱이었다고?..."총책은 중국",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0대를 대상으로 마약음료가 무작위로 유포되어 사회적으로 충격과 파장이 워낙 큰 사안 이었고,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경위와 배후를 다룬 보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매우 공감합니다. 사건 현장의 영상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고, 그 배후로 중국의 보이스포싱업체 조직을 지목한 경찰의 수사내용을 더하여, 유사 마약 사건의 피해를 방지하고 새로운 보이스포싱 수법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장의 재구성'이 사건을 심층적으로 혹은 다른 관점에서 취재하여 말그대로 '재구성'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코너인데, 대통령 의견을 전하는 대통령 홍보실의 발표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코너의 취지와는 거리감이 있어보였습니다.(진한수 위원)</p>	<p>지시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김은혜 홍보수석 브리핑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20초 가량이 들어간 것은 좀 길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길게 안 들어가도 내용은 충분히 나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p>			
<p>보도</p>	<p>이어 수험생들이 해당 조직에서 건넌 마약음료를 거리낌 없이 마시게 된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보도내용에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오남용을 지적하는 부분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마약 및 보이스포싱 범죄사안을 다루는 뉴스보도에서 범죄발생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약 처방 사례가 늘고 있고 성분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부분은 해당 보도의 내용의 논점을 흐릴 수 있</p>	<p>메틸페니데이트 성분 문제는 마약음료 범죄의 성격과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넣은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었다는 점은 앞으로 제작할 때 유의하겠습니다.</p>	○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는 불필요한 내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진한수 위원)				
보도	커피 맛이 다를까요?...경제적 자립 꿈꾸는 장애인들 (4/20), 장애인의 날을 맞아 경제적 자립을 향해 달려가는 장애인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다룬 것은 긍정적이거나, '커피 맛이 다를까요?'라는 타이틀은 부정의 의미이든, 긍정의 의미이든 (일반인과의) '다름'을 부각시킬 수 있어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안성희 위원)	장애인이 만든 커피하고 맛이 다를까요? 안 다르다라는 반어적인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받아들일 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보도	[고용브리핑365] '고립·은둔' 택한 청년들 (3/22) 청년 '취포족' 사상 최대 (3/28) 직장인 평균 대출액은? (4/4) "실업급여 1조 원대" (4/18), '고용브리핑365'는 각종 실태조사 결과와 통계 데이터 등을 토대로 고용 및 산업 동향을 쉽고 빠르게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매체와 차별화되고 특화된 코너여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4.4. "직장인 평균 대출액은?"에서 오프닝에서 스텔라장의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이라는 노래를 언급하는 등 기자의 재치가 가미되어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4.18. "실업급여 1조 원대"에서는 다양한 변수 등이 제시되어 일반인들의 이해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통계 수치나 그래프로 변화 추이 등을 추가해준다면 이해가 더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안성희 위원)	'고용브리핑365' 저희가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받아서 만드는 방송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변수가 있는 경제 아이템 같은 경우는 통계 수치와 그래픽 같은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시청자가 훨씬 친근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들 보완 노력을 하겠습니다.	○		
보도	4월 들어 휘발유값 상승세 전환, 전 기로 인상 우려 등 서민경제 관련 보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난 18일 뉴스리뷰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4개월 더 연장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는데, 기사가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 배경이나 유류세 현황, 정부입장 등 관련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리포팅을	시간의 제약하에 얼마나 시청자에게 친절하게 뉴스를 전달하느냐 문제인데요. 1분 반에서 2분짜리 리포트에서 시간의 제약 얘기가 나오는데 30~40초 짜리 단신에서는 문제가 더 크죠. 그렇다고 모든 뉴스를 1분반 이상의 리포트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다 보면 뉴스 시간을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해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반면, 지난 16일자 보도중에는 작년 한국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이 금융위기 이래 최저 수준이라는 내용이 짧게 보도됐습니다. 수출금액과 비중, 그리고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이고, 2년 연속으로 떨어졌다는 내용이었는데 팩트 전달 외에 원인이나 전망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맥락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뉴스의 경우 사실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에 따라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되는 요소들이 포함되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단순 팩트의 전달하기 보다는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나 전문가 의견을 전달하고,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깔끔한 리포팅을 통해 보도의 퀄리티를 높여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헌 위원)</p>	<p>소화할 수 있는 뉴스의 가지 수가 줄어듭니다. 단신에서도 한 줄 정도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해설을 넣어보도록 고민해보겠습니다.</p>			
<p>보도</p>	<p>재난 뉴스 보도 시 수어통역 제공 비용에 대한 아쉬움, 4월 12일경 강원도 강릉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으로 인해 대형산불로 확산되고, 그 피해가 크다는 특보를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민 대피령이 떨어졌을 정도로 당시 상황이 심각해 연이은 뉴스 보도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수어통역 편성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특보 뉴스 관련해 한 시민언론단체가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등에서 메인 뉴스에 수어통역 제공이 전혀 없었다'는 지적을 했고, 이것이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인력과 예산 문제로 수어통역 제공 뉴스의 편성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p>	<p>수어통역은 방통위가 의무편성 비율을 만들었습니다. 전에는 5%였는데 지금은 7%로 확대된 상태구요. 저희는 8.2%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2회, 휴일에는 1회 수어 방송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보다는 대피 등이 필요한 재난 상황에서 수어가 더욱 효과적이겠죠. 다만, 재난 특보 상황에서 수어 방송을 급하게 늘리기도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수어 통역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잘하는 수어 통역자들은 한정적이고 의무 편성 비율에 따라 각 방송사가 다 채용을 하고 있어요. 이 분들이 일정이 다 차 있어서 갑자기 확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재정 여건이 좀 더 나아지는 대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만 농인(聾人)들이 뉴스 정보의 접근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연합뉴스TV는 보도전문채널이자 공영언론으로서 적어도 재난방송처럼 사안이 긴급하고 중요한 뉴스에 있어서는 수어통역 제공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이성우 위원)	적 약자를 위한 지원 차원에서라도 수어방송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